**아그레다의 마리아**

****

 † 아그레다의 마리아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영적 세계와 적극적인 중보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글이라 퍼왔습니다.

아그레다의 마리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브래드 저삭> 중 --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스페인의 수녀로 중보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기도 방에 들어가 미국 남서부에 사는 원주민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였다.

그들에 대해 주시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녀는 영적으로 지금의 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곤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부족들을 만나 그들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전하였다.

어느 날부터 뉴멕시코 담당 신부인 프레이 알론조 드 베나비데스에게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보고는 '하늘색 옷을 입은 여인'이 그 곳의 원주민들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그 신부는 이 일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작정하여,

결국 스페인의 아그레다에 있는 성 끌레르 수녀원의 원장 마리아 수녀를 찾아 냈다.

그 신부는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갔다.

그 수녀는 자기가 본 부족들의 습관과 옷 모양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알고 있었다.

어디서 인디언의 언어를 배웠느냐고 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약 10여 년에 걸쳐 이러한 기도 여행을 거의 500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페인에 있는 수녀원 밖으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었다.